



이레클레 코슈타르

유라시아 어딘가, 생태계 붕괴 직전의 쇠락해가는 포스트 디지털 세계에서, 환멸을 느끼는 사운드 디자이너가 인공적인 새소리를 재생하는 스피커 스테이션들을 관리하는 미스터리한 임무에 나선다.

이곳은 *나쁜* 동네였다.

축축한 석고와 얼룩진 매트리스의 냄새가 났다. 코속 깊이 박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그 쓰라린 악취. 사미르는 목을 가다듬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무겁고 납빛을 띤 짙은 구름을 뚫고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 빛이 황폐하고 무너져가는 집들의 무리를, 온갖 쓰레기와 버려진 병들이 흩어진 좁은 보도를 드러냈다.

“저기 실제로 누가 살고 있긴 한 걸까?” 사미르는 멈춰 서서, 거의 만질 수 있을 것만 같은 절대적인 침묵에 습관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이곳은 제법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어야 했다. 평방 킬로미터당 아마도 다섯 명, 어쩌면 *열 명* 정도의 영혼이 흩어져 있어야 할 곳이었다. 이 추한 건축물의 미로 어딘가 뒤편에서 식기가 달그락거렸다. “물론이지, 그저 너무 이른 시간일 뿐이야.” 청각 기관은, 적어도 지금 순간만큼은 그를 배신하지 않고 있었다—잠시나마의 안도하도록. 사미르는 한숨을 쉬며 그림자 속을 계속 걸어갔다. 어디선가 위에서 가냘픈 기침 소리가 메아리쳤다. 근처 아파트 하나에서 불빛이 깜빡였다. 한때는 고귀했을 고대 건축물의 잔해가 이제는 인조 목재와 금속으로 만든 흉측한 구조물을 토해내고 있었고, 그것은 다른 거처들처럼 건물의 허물어져가는 정면에 매달려 있었다.

수 세기 전(*아니면 그보다도 더 전, GLOW 이전에?*), 이 구역은 도시의 중심지였다. 아마도 회사의 방대한 자료실은 변화했던 거리를 담은 폴리염화비닐 디스크(PVCD)나, 쇠락하기 전 이 지역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실버프린트를 보관하고 있을지 모른다. 젊고 더 열정적이었던 시절의 사미르였다면 분명 임무를 맡기 전에 제대로 된 현장 외 자료 조사부터 했을 것이다.



이제는 그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자극적인 냄새가 콧속으로 스며들어 비인두를 타고 흘러들어와,
사미르는 혀끝에서 그 혐오스러운 본질을 거의 맛볼 수 있을 지경이었다.
지금쯤 진토닉 한 잔이면 이 악취를 씻어낼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맥주라도.
“그런데 오전 8시에, 근무 중에 술을?” 이런 생각들을 밀어내려니 꽤나 노력을
해야 했다. 사미르는 배낭을 꺼내 지퍼를 열고 물통을 찾기 시작했다. 서툰
동작 하나에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다. 작업 배지, 표준형 PVCD 교체품
한 묶음, 트랜지스터 몇 개, 소형 전자부품 여러 개, 굵은 빨간 점 열두 개로
이루어진 곡선 패턴이 표시된 정교하게 그려진 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급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사내 물통.

사미르는 정신없이 배지를 집어 들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마분지 한 조각이 들려 있었다. 위쪽에는 회사 이름인 IREKLE
QOŞTAR LTD가, 아래쪽에는 그의 이름인 SAMIR FIRÛZÄ-ULI가 찍혀 있었다.
카드 중앙에 스테이플러로 고정된 바랜 실버프린트에서 생기 넘치는
까만 눈동자와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닌, 사진을 찍었을 그때는 잘생긴
모습이었던 젊은이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물통의 반짝이는 표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으로 시선을 옮기자, 사미르는 수염 난 턱 사이로 몇 개의 흉터가
비치는, 지친 모습의 늙은이를 마주했다—몇 시간 더 자면 좋을 것 같은,
망가지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다. 그는 실버프린트 속 미소를 따라
해보려 했지만, 이 시도에서 얻은 최선의 결과는 섬뜩하고 비웃는 듯한 씩
웃음이었다. 마치 배지 속의 이 쾌활한 친구가 웬지 사미르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그의 최고의 시절이 오래전에 지나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사미르는 이 얼굴도, 이 배지도, 이 일도 혐오했다.*꿈꾸던 직업*을 얻었을 때
느꼈던 그 순수한 경외감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은 이제 피로와 자기
혐오의 겹겹한 층 아래 깊숙이 묻혀버렸다. 값싼 술이 리터 단위로 양념처럼
뿌려진 채로. (*최신 제품을 만나보세요—최고급 바이오포닉(생체 음향)
디자이너들이 귀하의 생활공간을 위해 정교하게 제작한 고대 나이팅게일의
절묘한 선율. 이 매혹적인 소리에 폭 빠져보세요. 스트레스와 불안을 덜어주는
즐거운 치료제!*)

그때의 *배지* 속 사미르는 이 분야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에서 바이오포닉
디자이너로 일하는 것이 단순히 놀랍다는 것을 넘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고는 못 배겼다.

스테인리스 스틸에 비친 왜곡된 모습이 이 이상주의에 빠진 꼬마에게 소급해
서라도 알려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부자 멍청이들



을 위해 쓸모없는 모래성이나 만들고, 그들의 자아를 어루만져줄 그로테스크한 장식품이나 만드는 신세가 될 거라는 걸 말이다. “쓴 약에 달콤한 코팅을 하는 거지.” 한때 그에게 매우 중요했던 어떤 사람이 정중하게 밝힌 것처럼.



그것은 또 다른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이 모든 세월 동안, 그는 여전히 버림받은 아이처럼 느꼈다. 아이굴 삼시애-크즈 교수... 모든 바이오포닉 디자이너들에게 익숙한 이름이자, 이 분야의 진정한 개척자. 수십 년 전, 그녀는 멸종된 새 100여 종의 목소리를 재현해낸 소규모 연구팀을 이끌었다. 이는 회사의 초석이 되는 순간이었고, 지금은 IREKLE QOŞTAR(IQ) 카탈로그의 고전이자 사미르와 그의 동료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목표가 되었다.

삼시애-크즈 교수는 학계와 그녀가 공동 설립한 회사를 넘어 영향력을 미치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사미르의 스승이었고, 그를 이 직업의 복잡한 세계로 인도했으며, 어쩌면 친구이기도 했다—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가 거의 20년 전에 사직을 결정했을 때 회사가 *귀중한 자산*을 잃었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녀는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그저 소식이 끊어져버린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미르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이 세상에는 그 쓴맛을 감출만한 달콤함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때는 낭만과 고결함으로 둘러싸여 있던 회사 이름도 이제는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자유로운 새들... 마치 진짜 새가 아직 남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남은 곤충들이 최후를 맞았을 때, 사미르가 아직 갓난아기였다. 그 이전에는 포유류와 무척추동물들만이 이 버림받은 행성의 유일한 생존자들이었다. 인류가 곤충들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 그다지 슬퍼한 것도 아니었다. 사미르가 한 번 들었던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는 거의 3세기 전에 거대한 모기 떼가 인간을 공격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마지막 새들이 작별 인사를 했을 무렵이었다. 깃털 달린 생명체들이 맨 처음 떠났고, 지구의 생물권에 채울 수 없는 공백을 남겼다. 그 후 몇 세기 동안 어류가 사라졌고, 양서류와 파충류가 그 뒤를 이었다. 물론 그 어느 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않았다—그저 어느 시점에 번식 능력을 잃었고, 결국에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것이다.

생존 종의 마지막 경계에 선 포유류가 다음 차례가 될 운명이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출산율 감소를 종의 멸종과 연관 짓는 이들은 급진적인 사상가로 여겨졌다. 이제 그런 생각은 단순한 상식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별로 극적인 일도 아니었다—이 세상은 단순히 지쳐버렸고, 이제 마침내 영원한 잠에 들어가고 있었다. 인류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는 불가피한 것을 무시한 채 가장하며 살아가는 것뿐이었고, 그런 점에서 사미르 같은 이들의 일은 여전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다른 징후들도 있었다. 깃털 달린 생물들이 영원히 날아가 버렸을 때, 최초의 소규모 ITEMA가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다. 지구내 전자기 이상(Intra-Terrestrial Electromagnetic Anomaly)의 약자인 ITEMA는 과거의 과학자들이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성질의 일시적이지만 매우 강력한 전자기 방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용어였다. 처음에는 1제곱킬로미터를 넘지 않는 비교적 작은 영역에 국한되었던 이 에너지 폭발은 자석을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 혼란을 일으켰다. 헤드폰, 냉장고, 전동칫솔, 신용카드 등 무엇이든. 세상이 대응을 주저하는 동안 이상 현상은 점점 더 강력해졌고, 그 영향력의 범위를 넓혀갔다. 마침내 GLOW, * 전지구적 소거(Global Wipeout)*가 도래했다.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했던 이상 현상—모든 디지털 데이터를 순식간에 지워버리고 모든 저장 장치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쓸모없게 만든 갑작스러운 소거가 일어났다. 우리 인간이 오만하게도 *진보*라 여겼던 수세기에 걸친 지식의 축적을 없애버린 찬란한 섬광. GLOW의 날, 우리의 집단적 정신은 마침내 깨끗이 지워졌고, 우리는 그 영원한 햇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한 모금을 꿀꺽 삼키고 나서, 사미르는 물통 뚜껑을 닫고 모든 것을 배낭에 다시 쑤셔 넣기 시작했다. 그는 지도를 이곳이 바라보았다.

이 임무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브리핑 중에 부서장의 목소리와 자세에서 감지되는 명백한 긴장감이 있었다. “사미르, 이번은 우리의 특별한 고객이야. 절대 망치지 말게.” 그는 거의 쉿 소리를 내듯 말했고, 얼굴에선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부서장이 “특별한”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 누군가가 터무니없을만큼 부자라는 뜻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

임무 자체도 확실히 이상했다. 사미르는 약 5킬로미터에 걸쳐 곡선을 이루며 배치된 12개의 독립형 스피커 스테이션의 전체 유지보수를 맡게 되었다. 스테이션들은 한때 밤나무 숲이었던 것 같은 곳에서 시작해 도시의 빈민가를 지나 도심부까지 이어졌다. 마치 누군가를 위한 길이나 안내 같아 보였지만,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가 마주친 각각의 스피커 스테이션은 이 특정한 용도를 위해 맞춤 제작된 것처럼 보였고, 아마도 10년쯤 전의 것이었다. 우선, 이 상자들은 그가 오래된 책에서나 봤던 이상한 무선 부품들을 사용하고 있었다—IQ 표준 패키지에서 로빈, 휘파람새, 멧비둘기, 그리고 물론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모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두 개의 사인파 발진기, 저렴한 공명 필터, 그리고 링 변조기의 조합과는 전혀 달랐다. (*우리의 새로운 새소리 패키지로 사무실 공간을 개선하세요! 업무 공간에 통합되면, 마음을 진정시키는 음색이 도파민 생성을 촉진하여 직원들의 생산성을 급상승시킬 것입니다!*)

이 상자들은 그가 한번도 본 적 없는 릴레이와 진공관 트랜지스터를 사용했고, 브라운 노이즈 발생기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다. 전선과 납땀, 무선 부품들이 즐겁게 뒤섞인 혼합체였다. 누군가의 능숙한 손길로 지휘된 순수한 혼돈. 사미르의 배낭에는 PVCD 묶음이 펼쳐지지도 않은 채 굴러다녔다. 이 이상한 상자들 중 어느 것도 표준화된 폴리염화비닐 디스크 플레이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득 사미르는 대학 시절을 떠올렸다. 삼시아-크즈 교수가 이 기술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로 청중을 즐겁게 했던 때를. 그녀는 이 이야기를 우리 종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오만하면서도 사랑스럽게 감상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들려주었다. 대부분의 사라진 GLOW 이전 기술들과는 달리—과거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훌륭한* 생각이라고 굳게 믿었기에 되돌릴 수 없이 잃어버린 것들과는 달리—현대 PVCD 플레이어의 원형은 문명의 변방인 극서부의 반쯤 버려진 박물관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미디어 고고학자의 손에 들어왔다. 거기에는 방대한 양의 고대 전자 음악 컬렉션이 함께 있었다. 분명 이 컬렉션을 관리했던 사람은 동시대인들



사이에서는 괴짜로 여겨졌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오래 전에 모든 것을 디지털화했는데 왜 이 폴리염화비닐 디스크 들에 집착하는 거지?”라고 생각했을 테니 말이다.

대부분의 IQ 설치물들의 유지보수는 식은 죽 먹기였다. 상자를 열고, 하드웨어 를 점검하고, 디스크를 교체하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닫으면 끝이었다. 반면에 이 스피커 스테이션들은 특별한 주의뿐만 아니라 인내심도 필요로 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의 출력이 *진정되는 음색*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날카로운 비명이었고, 그 뒤를 이어 목음 처리된 두드림과 짹짹거림이 연속되었다—회색의 무심한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린 절박하고 날카로운 신호였다. 바이오포닉 디자인에 관한 오래된 책들에서, 사미르는 이런 종류의 소리가 비행 신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렵듯이 기억해 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다. 이 장엄한 고대 생명체들의 이주를 돕거나 무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일까? 아예 의사소통의 한 형태였을까?

누가 이것을 만들었고, 왜 만들었을까?

갑자기 차가운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밀 요원같은 미세한 물방울들이 펼쳐진 지도에 몰래 스며들어, 그 표면을 작은 호수와 강들의 풍경으로 변화 시켰다. 메스꺼운 악취는 더욱 강해져 공기에 달라붙었다. 몇몇 대담한 물방울 침입자들이 사미르의 방어선을 뚫고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맥주만으로는 안 되겠어. 하지만 일단 일을 끝내야지.” 지도에는 마지막 빨간 표시가 아직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저기 어딘가, 이 축축해진 미로의 중심에.

골목의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훈련된 귀만이 포착할 수 있을 만큼 희미한 소리였다. 이게 마지막일 거야.” 사미르는 소리의 근원을 향해 움직이며 중얼거렸다.

이 지역의 이 부분에는 뭔가 으스스한 것이 있었다. 폐허가 된 건물 몇 채가 쓰레기 더미들, 균열된 돌길들, 흐린 물웅덩이들 사이에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다. 어떤 길은 땅에서 구부러지고 녹슨 쇠막대기들이 튀어나온 울타리가 쳐진 구역으로 이어졌다. 이 기괴한 건축물은 사미르가 사라진 세계를 기록한 책에서 잠깐 봤던 고대의 교도소들을 연상시켰다. 그들이 정말로 도시의 중심부에 죄인들을 가두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전시했을까? 사미르 같은 현대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시대까지 살아남은 소수의 역사 문서들을 통해 과거 사회들의 잔혹함에 대해 많이 배웠다. 하지만 주변의 모든 것이 같은 야만적인 접근법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울타리 너머로, 많은 구조물들이 고대의 장식과 모자이크를 보여주고 있었다. 대부분은 무너질 듯 위태롭고 거의 알아볼 수 없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대부분은 대칭을 이루고 있었고, 구불구불한 가지 패턴, 실존하거나 신화 속의 다양한 동물들의 묘사, 그리고 간혹 멸종된 언어로 된 비문들을 특징으로 했다. 사미르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문자가 혼합된 것처럼 보이는 언어를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었고, 대부분의 비문은 철저한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다. 묘사된 신화 속 생물들 중 일부는 꽤 재미있었는데, 특히 화려한 가발을 쓴 대형 단모종 고양이처럼 생긴 것들이 그랬다. 사미르가 그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보니 이 가발 쓴 고양이들이 여기저기 있었다. 심지어 풍성한 갈기에 왕관을 쓴 모습의 이 생물이 놀랍도록 잘 보존된 기념물도 있었다. 이 생물은 중요한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생각은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소리의 근원이 점점 더 커져갔다.

이는 스피커 스테이션을 만든 사람의 기술을 진정으로 입증하는 것이었다. 멀리서도 그것은 다양한 휘파람, 딸깍거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멜로디의 리드미컬한 메들리를 연주하는 숙련된 오케스트라 같았다. 사미르는 더 이상 천천히 걷지 않고 거의 달리다시피 하며 소리의 근원을 향해 갔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무빙 실버프린트 상영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어린아이처럼. 아름다운 교향곡이 반쯤 무너진 정자에서 흘러나왔다. 그 정면에는 풍화된 간판이 겨우 매달려 있었고 세 글자만이 남아있었다. 첫 글자는 호처럼 생긴 수학 기호나 그리스 문자 같았고, 두 번째는 라틴어 “T”, 세 번째는 “N”의 거울상이었다. 이제 뚜렷한 새소리가 그 안에서 메아리쳤다.

사미르는 남아있는 문을 밀어제치고 들어갔다. 방은 컴컴했고, 지붕의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한 줄기 빛만이 중앙에서 약간 왼쪽의 작은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거기, 이끼와 돌무더기 위에 특이한 유물이 놓여 있었다. 나뭇가지, 풀, 그리고 다른 자연적 소재로 만든 구조물이었다. 누군가의 의지로 뒤집힌 밀짚모자처럼 생긴 이 유물은, 전체적인 장면처럼 믿기 힘든 것이었다. 이 구조물 가장자리에 매혹적인 소리의 근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손바닥 안에 들어갈 만한 작은 생명체였다. 그것의 생기 넘치는 반짝이는 눈은 두 방울의 검은 수지 같았고, 그 아래에는 긴 해부학적 구조가 있어서 부리라는 단어가 사미르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생명체의 머리는 두려움 보다는 호기심을 보이며 빠르게 좌우로 움직였다. 대부분이 갈색 계열이면서 부리 아래쪽에 선명한 파란색 깃털 무늬가 있는 다채로운 깃털로 덮인 작은 몸은 연약해 보이는 두 다리로 지탱하고 있었다. 비슷하지만 파란 칼라가 없는



또 다른 생명체가 뒤에서 나타나 잠시 멈춘 후 첫 번째 생명체와 함께 짙
구조물 가장자리에 자리 잡았다. 구조물 안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세 번째
개체, 아마도 가장 어린 것을 관찰하면서 사미르는 이 유물의 목적을 이해했다—
작은 거주자들, 두 자랑스러운 부모와 그들의 새끼를 위한 아늑한 성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사미르의 왼쪽에는 표준형 IQ 스피커 상자가 벽에 설치되어 있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그것을 열었다. 그것은 전선이나
무선 부품이 없는 위장용 상자였고, 유기물처럼 보이는 타원형 캡슐 몇 십 개가
들어있는 작은 병만이 들어 있었다. 상자에 붙은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일주일에 두 개의 캡슐을 주세요. 이것은 매우
영양가 있고, 그들은 나누는 법을 알 거예요. 행운을 빕니다, A.S.”

깃털 달린 세 생명체는 다시 노래를 시작했다. 그들은 숙련된 솜씨로 한 곡 한 곡
을 연주했고, 새로운 소리의 연속으로 폭발하기 전에 잠시씩만 멈췄다. 그것은
깨어나는 세계의 새로운 음악이었다—활기차고 매혹적이며, 아직 그 어떤 살아
있는 인간도 듣지 못한 것이었다. 순수한 기쁨의 원천이었다.

사미르는 그곳에 서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의 지친 얼굴은 밝고 진정한 미소로 빛났고, 마침내 배지에 묘사된 젊은이의
모습을 닮았다. 비가 그쳤고, 봄바람이 신선한 풀 향기를 실어와 빈민가의 신 냄
새를 몰아냈다. 구름이 천천히 갈라지며 떠오르는 태양에 길을 내주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다.

“이레클레 코슈타르”는 마파 에디션즈(Mappa Editions)가 발매한 “합성 조류
음악(Synthetic Birds Music)” 컴필레이션(2023)에 수록된 동명의 음악 작품
을 바탕으로 했다.



저자 소개

스타스 샤리폴라(HMOT)는 바젤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음악가이자 연구자이며 소리와 탈식민성을 다루는 예술가다. 바슈코르트 혈통을 지닌 중앙 시베리아 출신인 스타스는 채굴주의, 집단 기억, 정체성 기반 억압 문제에 초점을 맞춘 라이브 퍼포먼스, 강연, 개입, 사운드 설치를 통해 다양한 음악적, 듣기의 실천이 지닌 정치적 잠재력을 연구한다.



편집: 잉고 니어만

편집: 로잔나 맥래프린

한국어 번역: 박재용

일러스트레이션: 에바 파브레가스

그래픽 디자인: 아나 도밍게스 스튜디오

한국어판 그래픽 디자인: 박지현

© 2024, HMOT, 에바 파브레가스 & 와일드 퍼블리싱

스위스 바젤 응용과학대학교(HGK Basel FHNW) 예술 젠더 자연 연구소(Institute Art Gender Nature) 소속 기관